

# 범민련 여성위원회 건설을 위한 전여대협 활동계획

발신 : 7기 전여대협

수신 : 각 단위 총여학생회

용도 : 범민련 여성위원회 건설을 함께 하기 위해

## 0. 들어가며

기간 6.15공동선언이 발표되고 통일시대가 눈앞에 놓여져있는 정세에서 어떻게 하면 전체 여성민중의 요구를 받아안고 여성민중 모두가 통일에 일떠설수 있을까하는 고민은 여학생운동에서 큰 과제입니다. 그러한 과정에서 반미여성회가 결성되어 박수를 보내기도하고 여러단체들이 자주민주통일을 이루기위한 과정에 함께 해나가는걸 보면서 막연하게나마 여성단체 모두들 아우르면서 통일투쟁을 해나가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는 걸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범민련 여성위원회가 준비되고 있음을 알게 되었고 고민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특히나 범민련 여성위원회가 건설된다면 통일운동 영역에서 그러한 역할을 할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여학생운동을 전개하는 전여대협의 힘찬 지지와 공동의 투쟁이 있을때만이 더욱더 발전하고 올바른 길을 찾아나가는 범민련 여성위원회가 되리라 생각합니다.

언제나 3자연대의 원칙을 틀어쥐고 6.15공동선언 가치를 높이들고 나아가는 범민련!

범민련 여성위원회를 강화 발전시킬수 있도록 힘차게 나아갑시다!

## 1. 범민련 내 준비과정

범민련 여성위원회는 지금 새롭게 생긴 것이 아닙니다. 97년 이전에 여성위원회가 있었으나 가혹한 탄압으로 인하여 여성위원회 자체의 활동을 하기보다는 범민련 부의장으로의 활동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형식상으로는 있었으나 내용상으로 여성위원회가 있다,없다라고 규정짓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은 작고하신 주명순 선생님께서 여성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을 하였고 그뒤로 병환으로 돌아가시면서 여성위원회가 계속 있게 되지 못하고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다가 지난 2000년 전민특위가 결성되기위한 과정에 북측에서는 남측의 6개단체에 전민특위 건설에 함께 할 것을 제안 하였습니다. 범민련, 전국연합, 전농, 민주노총, 한총련, 한국여성단체연합이었습니다. 한데 안타깝게도 5개단체는 모두 합의하였으나 한국여성단체연합만큼은 합의를 이루지 못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과정에 범민련에 계시는 여선생님들께서는 심각한 고민과 충격을 가지게 되셨습니다. 북측에서 함께 하자고 하는 것에 대해 합의를 할 여성단체가 없다는것에 대해 여성운동에 대한 심각성을 느끼셨으며 무언가 필요하다는 고민들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러던 중 6.15공동선언이 발표되고 통일의 정세가 무르익으면서 선생님들께서는 범민련 내에 여성위원회를 다시 만들어보자라고 고민하셨습니다. 그래서 올해 2001년 상반기 범민련 의장단회의에서 공식적 안건으로 범민련 여성위원회를 건설하자는 논의를 하였고 책임있게 결정하고 결의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 2. 논의과정

범민련 여성위원회 건설을 위해 여선생님들께서는 전여대협과 함께 해야한다는 고민을 하였고 범민련과 전여대협의 만남이 8월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건설에 대한 의의와 여성위원회의 상에 대해 합의를 해나가면서 몇차례의 논의과정속에서 범민련 여성위원회 건설에 함께 할 것을 고민하고 계획을 잡아나갔습니다.

논의 결과로 나온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내년 2002년 범민련 중앙위총회가 있는 3월까지를 기한으로 건설준비를 해나가자, 두 번째는 아직 여성위원회 실무간부가 없는 상황에서 주체 또는 실무간부를 세워내자. 세 번째는 범민련에서 적극적으로 활동하여 여성단체들과의 공동투쟁이나 사업 그리고 범민련 여성위원회 활동에 대해 합의를 해나가자. 네 번째는 전여대협 내에서도 전체 여학일군이 함께 합의하고 고민해 들어가서 대중적 힘으로 여성위원회 건설을 준비하자.

다섯 번째는 이러한 준비를 해나가기 위해 범민련 내 여선생님들의 만남을 한달에 한번으로 잡아 학습이나 점검 총회를 진행하자.

## 3. 의의와 목표

1) 3자연대 조직의 위상에 맞게 남북해외 여성단체들과의 통일운동을 펼쳐나가면서 여성단체들도 3자연대의 확고한 틀을

마련한다.

- 2) 조국통일투쟁을 하는데 있어 이남 여성운동단체들의 구심이 되어 활동해나가면서 좀더 많은 여성단체들을 아우르며 더 대중적인 통일운동을 펼쳐나간다.
- 3) 조국통일투쟁 영역뿐만이 아닌 전반 여성운동의 전망과 대안을 밝혀나가는 데 범민련 여성위원회도 그 역할과 몫을 다한다.

#### 4. 범민련 여성위원회의 상

범민련 여성위원회는 두가지의 활동과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는 통일투쟁에 관한 전반 사업과 투쟁을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그리고 전체 여성민중을 대상으로 펼치는 활동상을 가지는 것입니다. 범민련에서 진행하는 통일사업과 투쟁을 함께 진행하기도 하고 범민련 여성위원회에서 여성단체를 대상으로 하여 독자적인 사업을 고민하기도 합니다. 또다른 하나는 전체 여성단체들과 함께 여성운동의 전망과 대안을 밝혀나가는 활동상을 가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통일투쟁에 관한 내용만이 아니라 다른 여성문제 사안에도 함께 하고 만들어나가는 역할입니다.

다시말해 범민련 여성위원회는 범민련 내 하나의 부서역할로 되어있어 어떤 여성단체를 가입시키거나 할수는 없지만 정책위원회, 조직위원회의 상과는 조금 다르게 나름대로의 독자성과 전문성을 가지고 활동하는 여성위원회입니다. 아직은 여성들만의 3자연대 독자적 조직을 만들기도 어렵거니와 그것이 상에 맞는가 하는 고민에서 출발하였기 때문에 범민련 내 하나의 부서역할로 활동하면서 범민련 내 전체적으로 사업과 투쟁을 함께 고민하고 만들어갈 고민입니다.

#### 5. 전여대협 활동계획

이러한 준비과정과 논의과정 그리고 범민련 여성위원회의 상에 맞게 전여대협이 해야할 역할이 있습니다. 범민련 여성위원회가 다시금 준비되고 건설을 하려고 할때 전여대협이 범민련 여성위원회 건설의 선봉부대가 되어 함께 해나가도록 해야할 것입니다.

범민련 여성위원회 건설을 위한 3월 중앙위 총회까지의 고민입니다.

1) 범민련 여선생님들과의 간담회를 진행하자.

여선생님들같은 경우는 전여대협과의 만남, 총여학생회와의 만남을 아주 기대하고 기다리시고 계십니다. 간담회를 진행하면서 여성위원회 건설의 의의에 대해 더욱더 깊이있게 인식하는 과정을 가지도록 합시다.

간담회의 내용은 소개/ 여성위원회 건설의 의의에 대한 이야기 (지역상황에서 여성위원회건설을 위한 계획 고민/ 활동내용 고민) 선생님의 삶에 대한 이야기로 진행하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간담회의 구체적 일정은 대학상황과 함께 논의하여 결정합니다)

2) 범민련은 나의 조직! 범민련에 대해 학습하자.

실제 범민련 여성위원회의 역사나 남겨져있는 자료는 거의 없습니다. 선생님들의 경험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여성위원회에 대해서만이 아니라 범민련에 대해 알아는 과정이 먼저 전제되어야 할것입니다. 해서 범민련의 역사성이나 투쟁과정을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3) 여성단체들과 범민련 여성위원회 건설에 대해 함께 할 것을 이야기 하자.

이에 대한 내용이나 활동상은 구체적으로 이후 제출될 것이지만 범민련 여성위원회 활동에 맞게 여성단체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합니다.

아직은 구체적 활동내용과 공동의 투쟁이 없는 상황이라 많이 막막하기도 할거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처음 시작하는 범민련 여성위원회이니만큼 전여대협이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 달려있습니다.

전여대협이 선봉에서 범민련 여성위원회 건설하여 조국통일 완수하자!!!

# 범민련에 대하여 알아봅시다.

04년 2월 14일 "범민련 7년" 공동의장단 회의

## 1)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결성경과

범민련 결성운동은 90년 8월 15일 1차 범민족대회의 공동결의를 출발점으로 본격화되었다. 1차 범민족대회 공동결의문에서는 "... 여섯째, 우리들은 통일애국세력의 연합을 확대 강화할 것이다..... 우리들은 남에 있는 북에 있던 관계 없이 진정으로 통일을 지향하는 모든 동포들이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여 '조국통일범민족연합'에 굳게 묶어 세우기 위하여 헌신 분투할 것이다."라고 민족대단결 실현을 위한 조직결성 문제와 관련한 결의를 모아내었다.

90년 베를린에서 진행된 남, 북, 해외 대표간의 '조국의 평화와 통일을 위한 범민족 통일기구 결성 3자 실무회담'은 범민족대회의 결의를 재확인하는 기초 위에서 조직체계, 당면사업, 결성사업계획 등을 확정하고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을 내외에 공식화하는 자리가 되었다.

베를린 회담에서는 91년 1월말까지 남, 북, 해외 각 지역분부를 결성한 후 의장단회의를 소집하여 강령과 규약을 확정하는 등 범민련 결성사업을 최종적으로 마무리하는 과정을 밟기로 하였다.

(90년 12월 16일에는故 윤이상 선생(재독 작곡가)을 의장으로 한 해외본부, 91년 1월 23일에는故 문익환 목사를 준비위원장으로 한 남측본부 준비위원회, 91년 1월 25일에는 윤기복 선생(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을 의장으로 하는 북측본부가 결성되었다.

해외본부는 현재 미주, 일본, 중국, 독립국가연합(구 소련), 호주, 유럽, 캐나다 등에 지역분부를 두고 있으며, 범민련 공동사무국(초기 베를린, 현재 일본에 위치)을 운영하는 주된 역할을 담당하고 있기도 하다.

남측본부는 91년 30여 사회단체와 정당이 함께 한 가운데 준비위를 발족하였으나 준비위 결성 다음날부터 시작된 집중 탄압(재정 집행위원 전원 탈퇴 협박, 실행위원장 연행 등)으로 남측본부 결성사업이 지체되다가 95년 2월 25일 남측본부를 정식으로 결성하였다.

## 2) 조국통일범민족연합 결성의 역사적 의의

지난 90년 베를린 회담 공동선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

"베를린 3자회담을 통해 세계에 공표된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이야말로 오랜 투쟁속에서 어렵게 쟁취한 자주적 평화통일운동을 일관된 방향으로 집대성하고 이후 전개될 통일운동의 대중화와 단결을 담보할 기구로 기능할 것이다."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은

첫째, 분단 이후 반세기동안 남, 북, 해외의 각 지역에서 고립 분산적으로 통일운동을 벌여오던 모든 통일지향세력이 하나의 연대기구를 결성함으로써 전민족적으로 역량을 결집하여 조국통일의 주체역량을 비상이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다.

우리 겨레는 외세에 의해 강제로 분단된 이후 남북이 서로 대립하고 반목하면서 민족의 역량을 소진해왔다. 이와같은 조건에서 남북의 각계 각층 민중이 사상과 제도의 차이를 초월하여 민족대단결을 이루는 것은 조국을 통일하는데 있어서나 민족의 자주권을 되찾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의의를 가진다. 범민련의 결성은 수십년의 분단세월동안 강제로 격리되어온 남과 북의 민족자주, 통일역량이 다시금 대단결을 이루어 하나의 강력한 정치역량을 형성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둘째, 우리 민족이 각계 각층을 망라하는 거족적인 통일운동 조직을 가지게 됨으로써 통일 과정에서 나서게 되는 여러 가지 복잡다단한 문제들을 전체 민족의 의사와 요구에 맞게 합리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게 되었다. 분단 이후 반세기가 흐르는 동안 남과 북의 사회에는 커다란 변화가 있었고 이로 인해 통일의 도정에서 고려해야 할 많은 복잡한 이해관계가 형성되었다. 따라서 우리는 통일문제를 어느 특정 정파나 계층 위주가 아니라 민족 공동의 이익에 맞게 각계각층의 의사와 요구를 모아 풀어 나가야 광범한 통일역량이 빠짐없이 결집할 수 있으며 조국통일의 대업을 보다 성과있게 그리고 합리적으로 추진할 수 있다.

범민련은 남과 북, 해외의 광범한 각계각층 민중을 포괄하는 조직으로서 발전하여 통일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여 합리적인 통일방도인 6.15공동선언을 실천해 나가며 이를 힘있게 추진할 수 있는 기본 토대를 마련할 것이다.

## 3) 범민련 남측본부의 의장단소개

의 장 : 이종린

명예의장 : 신창균, 강희남

부 의 장 : 서울시연합 김규철, 경기인천연합 이태영, 대전충남연합 정효순, 대구경북연합 한기명, 부산경남연합 서상권, 광주전남연합 임동규, 민자통 도강호, 한청 전상봉, 한총련 최승환

고 문 : 김병두, 기세문, 나창순(구속), 류금수, 류락진, 박정숙, 변정수(법률고문), 소련, 이기형, 이현수, 임기란, 임방규, 최상원(가나다 순)

## 4) 범민련의 활동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가장 핵심적인 활동으로는 매년 8월에 추진되는 통일행사를 성대히 성사시키기 위한 사업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 외에도 민족의 자주와 대단결, 화해 협력을 위하여 토론회, 집회 등의 실천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범민련은 각 지역본부별로 북측본부는 '민족대단결', 남측본부는 '민족의 진로'라는 자체의 통일잡지를 발간하여 성원들과 그의 통일단체들안에 통일에 대한 내용을 전달하고 있다.

범민련은 최근 남측본부가 이적단체로 규정되어 탄압을 받고 있는 현실속에서 범민련 남측본부의 이적규정을 철회시키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 5)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의 조직체계 및 운영의 특징

범민련은 남, 북, 해외 3본부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동사무국을 두어 3본부의 의사소통과 연락업무를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범민련은 최고의결기구로 범민족회의를 두고 있으며 90년대에는 8월 15일 개최되던 범민족대회 안에서 범민족대회를 개최하였지만 정부의 탄압으로 인해 실질 회의

